



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연말연시를 맞아 예외 없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시작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금년 1월말까지 모두 981억원을 모금하기로 하고 '희망 2005 이웃사랑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이웃사랑 캠페인의 주제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로 정해졌다. 이는 단순히 불우이웃에 베푸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나눔을

새해가 또 시작됐다. 지난해는 경제도 어렵고 취업도 잘 안돼 각 가정이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유난히 힘든 한 해였다. 올해에는 우리 모두가 지난해보다는 살림살이 형편이 좀 더 나아지고 실업자가 줄어들고 경기가 좋아져서 온 국민이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국내경기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예측이어서 벌써부터 마음이 움츠러들게 된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더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나눔이 필요하다. 작은 정성이나마 전달하고 싶는데 막상 엄두가 나지 않지만 나눔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년 1월말까지 981억원 모금키로

우리 주위에는 겨우살이 걱정을 하는 불우이웃들

통해 함께 행복을 가꿔가자는 취지이다.

큰 돈을 내놓는 것만이 나눔은 아니다. 나와 내 가족이 살아오면서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바로 나눔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될 수 없다. 다만 정성이 문제일 뿐이다.

요원의 불길 같은 '1% 나눔 운동'

최근 들어 조용히 번지고 있는 '1% 나눔의 운동'이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경·계계의 최고 경영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봉 1% 나눔도 있고, 나눔의 공동체인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 소득의 1%를 떼어 내놓는 회사원이 있는가 하면, 생활비 1%를 회사하는 주부도 있다. 책을 팔아 얻은 인세의 1%를 기꺼이 기부하는 작가와 학자, 공연 때마다 입장권의 일부를 무료로 내놓는 예술인들도 늘어가고 있다.

올해엔 '나눔'을 생활화하자



이광호 KBS 해설위원

특히 재계가 앞장서서 불황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이웃을 돕는데 예년보다 훈훈한 세밑 온정을 보여주고 있다. 전경련은 연말에 사랑, 나눔, 행복 행사를 갖고 전통월채어 2천여 대를 전달했고 삼성, LG, SK 그룹도 예년보다 많은 액수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함으로써 대대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는 사회 각계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기업으로서의 책임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우리 국민 기부액수 선진국에 크게 미흡

그러나 우리의 나눔의 방식과 수준은 아직도 미흡하다. 지난해 우리 국민 한 사람당 기부액은 5만 7,859원으로 조사됐다. 2001년 조사 때의 5만 1,775원에 비해 12% 가량 늘어났다. 또 자선적 기부경험이 있다는 사람이 64%로 2001년의 48% 보다 크게 높아졌다. 우리 국민의 기부액수가 해가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영국의 절반, 미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기부에 대해 지나치게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불우 시설을 찾아가야 하고 많은 돈을 희사하는 것만이 기부가 아니다. 내 주변의 어려운 형제를 돕거나 친구나 동네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나눔이다. 은행 창구나 지하철역에서 단돈 천원을 내고 사랑의 열매를 사도 이웃을 위해 베푸는 일이다. 비록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모으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말처럼 여러 사람이 나서면 한사람을 돕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나눔의 생활화, 기부 활성화해야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일부를 나눠주는 것, 즉 나눔이란 우리 이웃과 우리 국민과 나아가 지구촌 사람들에게 희망과 삶의 의욕을 북돋워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이다. 나눔이 있기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좌절했다가도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나눔을 생활화하고 기부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미국인들은 자녀들에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내 자식, 내 가족에만 집착해 심지어 어려운 형제조차 돌보길 꺼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내 뜻만 있다면 나눌 곳은 많이 있다. 이웃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이웃을 도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임을 가슴에 새겨야 할 때이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나도 기쁘고 내 자식도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는 상부상조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1등으로 살아남는 것을 가르쳐온 우리 교육의 결과로 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우리도 부자들이 먼저 지갑을 여는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야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돈을 벌었다면 그만큼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빛진 게 많은 것이며 동시에 이웃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기부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기부나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공헌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학교 교육도 절실하다.

올유년 새해를 맞아 올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훈훈한 인정이 가득했으면 한다. 우리 모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됨으로써 이웃 사랑의 참뜻을 되새기고 사랑의 체감 온도계를 더욱 높여 희망을 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기원해 본다. ☺